4.
1971년3월5일
국제신보

# [illegible] 2331位

## 日帝에 强兵·徵用돼 끌려가 무참히 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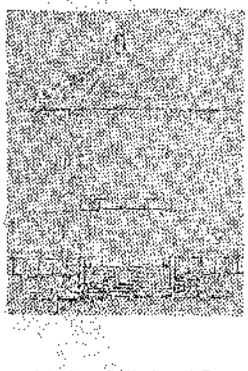
태평양전쟁말기인 30여년전 일제에의해 타범 극 펼쳐지고있다. 조국은 일제에 테앗겼던 죄 으로 끌려간 군인 군속등 의지에서 전사 또 한창 괴어 오르던 젊음을 부더운 남양군 천 한국인 원령(怨靈)2천3백31위가 유전이된 는나 추운 만주벌판등지에서 무참히 짓밟혔 지 26년이지난 지금까지도 일본후생성의 음 던 원령은 무려 2만6백23위나 되는 것으로 알 침한 창고속에 방치돼있는 사실이 한 재일 려졌으나 소재지를 모르던중 이번에 2천3 교포에 의해 밝혀져 이들의 유족들과 생존 백31위의 명현이 일본후생성 창고에 방치돼있 자들 뜻있는 인사들의 원령봉환운동이 적 음이 밝혀진것이다.

## 故國땅에 遺骨 언제나

이 2천3백31위의 명단은 약 1년전 三一독립운동유공자이며 「재일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골봉환회」회장인 姜淵鎬씨(60·東京시·제주도 출신)가 일본 후생성관리들과 오랜 교섭끝에 알아냈으나 일본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와 조련계의 방해공작 등으로 지금까지 유골봉환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더우기 지난 64년부터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어 여러면에서 협조무드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관리들의 유골은 일본정부의 비협조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실정.

姜씨는 13년전부터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골봉환회를 만들어 매년한번씩 일본東京의 九段회관에서 영령위령제를 올리는 한편 원령의 명단 입수와 유골의 행방을 찾던끝에 지난해에야 일본후생성에 방치된 사실을 알아내어 사재5천만원까지 들여 봉환사업을 실현하려고 애쓰고있다.



부산오륜대에 세울계획인 납골당 조감도。

## 名單 발표되자 朝聯서 방해工作

비협조적인 일본정부 태도에 분격한 姜씨가 지난해6월 입수한 원령들의 명단을 일본 각 신문에 공개하자 일본정부는 크게 당황했고 처음엔 원령봉환을 허가할듯 했으나 북괴의 앞잡이 조총련계에서 명단이 밝혀진 2천3백31위중 5백여위가 북한출신이라면서 한국봉환을 방해하고 나서 봉환을 허가할듯하던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일교포 실업가인 姜씨는 지난해 10월3일 일본九段회관에서 윤린 위령제에 전국회의장 과 삼유씨, 진친한씨, 鄭撰永씨등 국내지명인사들과 일본 정부고위관리 및 국회의원들로 아붐 환사업의 실현을 호소해 일본 진한인사들의 동정을 얻었고 국내에서는 재단법인 부산 영원(靈園)이사장 鄭撰永씨(52·서울중구 수표동)가 만아 적극추진키로 했다.

이 위령제에 참석, 姜씨로부터 봉환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된 鄭씨는 지난해 11월10일 보사부에 봉환사업 신청

## 日政府서도 協調안해

서를 내고 전국적으로 유족찾기에 나섰다. 태평양전쟁 전몰자 유골봉환회란 이름으로 각 신문지상에 원령들의명단을 발表하자 전국 곳곳에서 5백여 명의 유족들이 몰려들어 鄭씨

## 교포 姜회장등 私財를 털어 慰靈祭등 뜨거운 奉安 사업

# 釜山오륜동산에 墓地마련

는 이들로부터 유골봉환위임장을 받아 姜씨를 통해 일본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유골을 봉안할 장소는 물색 부산시동래구오륜동산105의7번지 임야 6천3백평을 확보(사유지)해 놓고 일본정부의 봉환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鄭씨는 처음 부산영원이 관리하는 청동 공원묘지 한쪽에 태평양전쟁권몰자 원령을 봉안하려했으나 부산시가 허가해주지않아 사유지를 물색했다.

鄭씨는 또 오륜대의 원령봉안지에 높이20m의 석제위령탑과 연건평1백20평짜리 석조납골당을 건립키위해 설계를 이미 끝냈으며 봉안사업이 실현되면 매년 2회씩(춘추)위령제를 지낼 계획도 세우고 있다.

鄭씨는 「한국정부는 우리나라에 묻혀있는 일본인 유골을 찾아내어 곳곳에 안치해놓고 있는데도 일본정부가 과거에 자기국민들을위해 희생당한 한국인 유골봉안사업에 협조하지않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면서 봉환사업에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과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협조를 바라고있다.

鄭씨는 앞으로 봉환사업이 실현되면 북한출신은 이북5도지사들의 승인밑에 부산에 봉안해두었다가 분단된 국토가 통일되면 유족들의 의사에따라 처리할것도 계획중이라고.

【釜山=[illegible]記者】